



오순절 이후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한다. 부흥이 커질수록 교회 안에는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빠진다는 불만이 제기되며 공동체 안에 갈등이 일어난 것이다.

(행 6:1) “그 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지므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교회의 구제 사역을 맡을 일곱 사람을 세우기로 한다. 사도들이 제시한 기준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행 6:3)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성령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공동체에 화평을 이루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이다. 그래서 참된 지혜가 있는 사람은 갈등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풀고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된다.

(행 6:5)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택하여”

성령에 충만한 빌립 집사의 섬김을 통해 교회 안의 갈등이 해결되었고 공동체에는 다시 평안이 찾아왔다. 성령충만한 사람은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성령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직분에 상관없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한 민족의 문을 열고 역사의 방향을 바꾸셨다.

❁ 적용 질문 1

- 1) 빌립은 성령과 지혜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 상태를 ‘날씨’에 비유한다면 어떤 모습인가요?
- 2) 빌립처럼 지혜롭게 상황을 풀어나가기 위해 문제 해결자로서 내가 더 인내하거나 노력할 점은 무엇인가요?

해답 2. 그는 성령에 이끌려 복음으로 땅을 정복한 사람이었다.

스테반 집사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핍박이 일어나 모든 땅으로 흩어졌고,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하기 시작했다.

(행 8:1, 4)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4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그때 성령에 붙들린 빌립 집사는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로 내려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행 8:6-8)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좃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앉은뱅이가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이 들어가면 어둠이 무너지고 묶였던 영혼들이 자유함을 얻으며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

그후에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광야 길로 내려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난다. 수레 위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내시에게 말씀을 풀어주며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고 세례까지 주게 된다. 그를 통해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 적용 질문 2

- 1) 빌립은 편견을 깨고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내가 가진 고정관념을 버리고 먼저 따뜻하게 다가가야 할 ‘대상’이나 ‘장소’는 어디인가요?
- 2) 빌립은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서 단 한 사람의 내시를 돕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이번 주, 나의 진심 어린 위로와 관심이 꼭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해답 3. 그는 순종으로 복음의 열매를 남긴 사람이었다.

빌립의 순종은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결국 한 시대의 역사로 이어졌다. 교회 안에서 충성되게 섬기던 평신도 집사의 섬김이 예루살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감으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었고 공동체는 더욱 든든해졌다.

그리고 그는 교회 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세웠다.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빌립의 집에 머무는 장면이 나온다.

(행 21:8-9)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 즉 전도자로 살았으며 가정에서도 믿음을 세운 아버지였다는 것을 보여 준다. 진정한 영적 영향력은 개인의 사역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 영향력은 가정으로 이어지고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

또한 그의 사마리아에서의 전도는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던 사도들을 깨우는 사건이 되었다. 복음은 유대인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불씨가 된 것이다.

그리고 광야에서 만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해진 복음은 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진다. 첫 이방 선교가 시작된 에티오피아는 가장 오래된 기독교 국가 중 하나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사람의 삶은 결코 작지 않다. 처음은 작아 보일지라도 그 순종은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깨우며,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통로가 된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고 다스리신다.

❁ 적용 질문 3

- 1) 빌립은 밖에서는 전도자로, 안에서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된 아버지였습니다. 나는 가정 안에서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신가요?